

광주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되는 것 아냐?” 반발

‘남자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 개정 반대 모금운동 등 시위 학교측 “공학 전환 아냐...학생들이 오해” 오늘 총학 만남 예정

광주여자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측의 외국인 남학생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싸고 촉발된 학교-학생간 갈등이 광주여대에서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의 광주여대 게시판에는 “근조화환 (구입비)모금합니다”, “과잠(학과 점퍼)/전공서적 시위안내” 등의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다.

학교측의 학칙 개정 반대 모금운동을 하고 13일 오전 9시 광주여대 본관과 도서관 사이 중앙

계단에 과잠과 전공서적을 쌓아놓고 시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근조화환 구입비로 170여만원을 모았다.

광주여대 학생들의 반발은 학교측이 지난 4월 ‘남학생 모집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측은 30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하는 국제학부와 성인학습자 입학 학과인 미래융합학부의 남학생들을 늘리겠다는 안을 공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광주여대에는 10여명의 외국인 남학생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 절반 가까이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측은 “현재 학칙을 개정할 상태로, 입시요강은 내년부터 수정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학교재정이 어려워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학생까지 모집하는 건 여대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가 구체적인 의견 수렴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서 “공학 전환으로 논란되고 있는 동덕여대와 광주여대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측의 외국인 유학생 정원 확대 방침을 공학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여자대학교의 존립 이유를 해치는 외

국인 남학생 추가 입학을 중단하라”며 “여성을 위한 여자대학교의 본분을 직시하고 학생의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여서 입학했는데 캠퍼스에 남학생을 들이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장 광주여대 에브리타임에서는 ‘학교에 출입하는 남학생들이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컷 폴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선이나 말)을 한다’, ‘기숙사 사는 친구는 학교 안으로까지 미행 당했다’, ‘학교 소속이 아닌 남성이 토끼탈을 쓰고 캠퍼스 안으로 들어와 학생들을 쫓아왔다’는 등 남학생 출입과 관련된 민원성 게시글이 이어졌다.

학교측은 “공학 전환은 전혀 아니다. 지난 4월 진행했던 학생 의견수렴 결과를 3차례 공지했고 22개 학과 학생들을 만나 설명회도 열었다”면서 “학생들

이 요구하는 학칙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13일 총학생회를 만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여대 총학생회 ‘여운’은 이날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및 철회를 요구한다’는 연대 입장문을 내고 “오랜 학교의 역사를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동의 없는 선택으로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이틀째 본관과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에는 서울 성신여대도 2025학년도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성신여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타이어열차 씽씽! 광주시 서구 유덕동 아미마을 아동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아미키즈 팝업놀이터’가 12일 유덕어린이공원에서 열렸다. 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타이어로 만든 열차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석면제거 책임져야”

시민모임 “법적 기반 마련을”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에 설치된 석면 제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광주 지역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지만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은 섬유형태의 건축자재로 분진에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 물질이다. 학교, 슬레이트 지붕 등에 쓰였으나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인만큼 석면 제거를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와 지도감

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자치구 역시 광주시교육청에 “석면 천장재 절거 등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유치원 석면 현황 공개’, ‘사립유치원 시설 공사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법인전환 조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

광주·전남 경찰, 14일 수험생 수송 만전

시험장 반경 2km 이내 혼잡 교차로 등 교통관리도

광주·전남 경찰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광주·전남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

광주·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반경 2km 이내 주요 혼잡교차로를 중심으로 경찰관·모범운전자 등 757명,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155대를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시험장 주변 차량 혼잡이 예상돼 200m 전방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자체와 함께한다.

수험표 분실·미소지, 시험장 착오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 또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인접 순찰차로 시험장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수험생 편의도 제공한다.

광주 지역 수험생 태워주기 지정 장소는 광산(운남사거리·첨단우리는행사거리·광주송정역) 3곳, 동부(산수오거리·무등중사거리·남광주사거리·장동로터) 4곳, 서부(서구청삼거리·화정사거리·풍곡사거리·상무역사거리·광천사거리) 5곳 등이다.

남부(운전각사거리·백운광장·씨티병원) 3곳, 북부(일곡사거리·문화사거리·경신여고사거리·말바우사거리·운암사거리·유동사거리) 6곳 등에서도 운영된다.

경찰은 듣기평가가 시간대 소음 예방을 위해 3교시(오후 1시 10분-1시 35분-25분간)에는 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경적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천에 파란 물이?

동구 아파트 도색 작업자 실수로 페인트 36리터 유입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페인트를 옆길러 광주천에 페인트가 유입됐다.

광주시 동구는 12일 오전 10시에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교 인근 광주천에 ‘파란색 오수가 흐르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동구는 파란색 페인트 희석수 36ℓ가 광주천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용존산소량·PH농도 변화 등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는 흡착봉을 이용해 페인트를 걷어내고 확산 방지 조치를 했다. 유입된 페인트는 남광교 인근의 한 아파트의 우수관을 통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가 공중 작업용 로프로 옥상에 놓아 둔 페인트 통(14kg) 2개를 었지 르면서 페인트 희석수 일부가 아파트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 여부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도색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i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